

“대양산단 분양·해상케이블카 설치 함께 이뤄냅시다”

## 현안 설명·토론... 달라진 소통행정

박홍률 목포시장이 민선 6기 시정 철학인 ‘소통 행정’을 위해 연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관내 23개 동을 순회하며 ‘2015년 시정보고회 및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톡톡(Talk Talk)’ 튀는 현장 투어를 펼쳐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박 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관내 178곳에 달하는 경로당 전부를 일일이 방문하는 의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연초만 되면 각 지자체마다 연례행사로 펼쳐지는 순회 방문이지만 목포시 동 순회회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다. 달라진 목포시 동정보고회와 경로당 방문이 남긴 성과 등을 짚어봤다.

◇동(洞) 순회방문 무엇이 달라졌나=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시간의 단축이다. 이전에는 평균 2시간 이상 걸려 지루했지만 1시간으로 축소돼 짜임새가 있다는 반응이다. 지적 실책의 홍보 절차도 사라졌다.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방점이 찍혔다.

예년과 달리 동별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발표, 자랑스러운 모범시민 표창 등은 특색 있는 진행으로 꼽혔다.

특히 시장의 친적을 홍보하는 대신 지역 최대 현안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점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이번 방문에서 시장은 ‘대양산단 분양과 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두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가는 곳마다 박 시장은 “대양산단 분양은 목포시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민·관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상케이블카는 민생 케이블카다. 운송업계, 숙박, 음식점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시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결코 아니다. 현재는 여론을 수렴하는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어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앞으로 토론회, 공청회, 의회와의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홍률 시장이 한 달 동안 관내 178개소 경로당 전부를 순회하는 ‘소통 행정’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에 대해 박 시장은 “목포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발전의 묘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박홍률 목포시장 동 순회방문 치적 홍보 대신 목포미래 논의

### 관내 모든 경로당 일일이 방문 노인복지 적극 시정 반영키로

◇경로당 방문의 성과와 과제는=각 동 보고회 때마다 단축된 시간을 활용해 박 시장은 각 동에 소재한 경로당을 직접 찾았다.

반환점을 둔 지금까지 방문한 경로당만 90여 곳. 일부 경로당에서는 “경로당이 생긴 이래 시장의 첫 방문”이라며 뜨거운 환대를 받기도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박 시장이 거둔 성과는 단연 해상 케이블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수렴을 꼽는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목포에는 이렇다 할 관광시설이 없어 왔다. 그냥 가버리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외지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 명이라도 더 와야 하듯 못 별치 한 포대라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반응을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

고 대면 소통을 통해 굴곡 없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 이번 방문의 성과”라며 “건의사항은 노인 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론 수렴의 성과를 거둔 반면 경로당 환경이 지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예산 반영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다수의 경로당은 컴퓨터, 책상, 정수기, 전기압력 밥솥,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전기제품과 생활필수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시 관계자는 “예산에는 자생조직의 도움도 많았고, 어르신들이 심심할만 청소도 하고 반찬도 가져와 나눠먹는 미풍양속이 있었으나 지금은 모든 것을 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경로당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 위원회 A 의원은 “시의원들의 민원 가운데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 예산운용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으로 경로당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세워 경로당 환경을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시민과 소통의 날, 현장 소통의 날, 시민소통 토론마당,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등 형식이 엄매이지 않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가면서 시민참여의 소통시장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임영춘·고규석기자 lyc@

## 영·호남·충북 8개 지자체 관광활성화 손잡았다

목포·강진·대구 중구·제천 등 대구서 협약식

목포시와 강진군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남·경북·충북 기초자치단체와 손을 잡았다.

목포시와 강진군은 지난 13일 대구 중구에서 대구, 경남, 경북, 충북의 기초자치단체와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에는 목포시·강진군 등 전남 시·군을 비롯해 대구 중구, 경남 함안군, 경북 청송군·정선군, 고령군, 충북 제천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목포시는 4월 호남고속철도(KTX) 개통과 함께 올해 말 준공예정인 88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충북, 경북과의 인적교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8개 자치



단체는 앞으로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주민 상호방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참여 시·군별로 매년 1000만원을 출연해 참여 시·군을 패키지로 둘러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지역민들의 교류를 위해 관광지과 숙박, 음식점, 공연장 등 관광시설에 대한 이용 할인혜택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미혼여성 근로자 보금자리 목련아파트 21년만에 개보수

목포시에 거주하는 미혼여성 근로자들의 보금자리인 목련아파트가 21년 만에 개·보수 된다.

목포시는 “주민참여예산 2억 원을 들여 시급한 노후 시설 위주로 오는 4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목련아파트는 건립된 지 20년이 지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싱크대·신발장·정관 등이 노후화된다 배란다 창호도 없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아파트 외·내벽의 도장상태도 변색·탈색이 심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9월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의 시장 질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이 아파트 전체를 개·보수하는 데 ▲건물 내·외부 도장 공사 1억원 ▲배란다 창호 설치 2억 5000만원 ▲내부 시설물 교체 2억5000만원 ▲전기·소방공사, 보일러 교체, 창틀 보수 2억원 등 총

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예산 2억 원으로 싱크대와 신발장, 정관을 교체하고 도배와 운수 배관시설 개·보수 등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건물 내 외부 도색과 전기·소방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창틀 보수 등을 내년에 예산을 세워 추진할 방침이다.

차연의 사회복지과정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며 6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저소득 사업장 여성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4년 정정원 창립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어진 목련 아파트는 지상 12층 규모로 13평형 115호실을 갖추고 있으며, 미혼여성 근로자 233명이 거주하고 있다. 월 사용료는 1인당 약 1만3500원, 큰 방은 2만7000원으로 저렴하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교육청 15개 중·고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현주)은 최근 문태중학교를 비롯한 관내 중학교 14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경찰서와 한국BBS 목포신안지회, 모범운전자회,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연합회, 패트를 맘 등 협력단체 등 230여명이 참여했다.

문현주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관심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활동과 더불어 ▲바른말 고운말 쓰기 생활화 ▲교통규칙 지키기 생활화 ▲깨끗한 목포 만들기 생활화 등 품격 높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목포사랑 3운동’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지방지사		시내지국	
광 신 0621944-0444	남 원 시 0631626-1601	광 천 966-8375	광 양 222-9440
군 산 시 063467-2500	순 창 군 0631653-0444	남 부 682-0175	동 동 264-2012
정읍시 0631531-5544	서 울 보 금 소 021313-5962	동 명 222-9054	동 부 225-5001
		문 흥 267-4788	운 선 672-4688
		백 선 675-5530	북 주 525-3781
		상 무 377-2352	서 광 369-0683
		송 하 676-6605	산 안 312-1732
		양 산 371-7658	오 치 306-7001
		우 봉 322-7752	운 천 312-8116
		신 평 371-9818	월 곡 961-9338
		중 흥 222-1986	중 흥 224-6804
		진 월 673-1600	진 월 673-1900
		침 단 256-8212	창 평 376-6511
		충 치 682-8112	하 남 959-1800
		화 정 375-968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